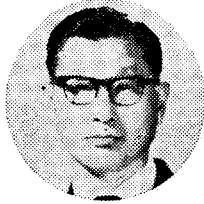


輸出과 特許戰略



吳 相 世

〈延世大學校 名譽教授：發明人〉

① 重化學工業製品輸出의 必要性

1970年以後 우리나라 總輸出은 年平均 44.9%의 伸張率을 維持하여 왔는데 이 가운데 重化學製品의 수출은 無慮 66.0%의 높은 신장율을 이룩함으로써 지난해 125億弗 輸出目標의 早期達成에 크게 寄與하였을 뿐만 아니라 輸出商品의 構造高度化의 一助가 되어왔다.

그러나 國民經濟의 工業化 내지 重化學工業化라는 發展史的인 面에서 볼때 200億弗台 輸出을 目前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總輸出上의 比重이 지난해에 겨우 30%水準에 머물렀다는 事實에 대해 冷嚴히 直視 해야할 것이다.

先進 重化學工業國이 100億弗台 輸出時期에 있어서 그들의 輸出商品構造上의 重化學製品水準과 비추어 보면 오늘의 우리나라 輸出商品構造가 너무나 脆弱한 狀況에 있음을 切感케 한다.

例컨데 英國은 100億弗台 輸出을 한 1963년에 중화학제품이 62%를 훨씬 넘어서 있었고 日本의 경우 1967년에 66%로 올라 있었으며 西獨은 1962년에 80%를 크게 超過했었기 때문이다.

한 또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게 重化學工業化

를 推進하고 있는 台灣과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53億弗을 수출한 1975년과 1973년에 이미 重化學製品 輸出比重이 32.0%를 占한바 있다.

이렇게 볼때 오늘의 우리나라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成課는 한편에서 보면 至大한 것으로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未洽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60年代末까지 10%에 未及했던 우리나라 重化學製品 輸出의 比重이 不過6~7年만에 30%水準으로 提高되었다는 點에서 오늘의 輸出成果를 가져오게 한 肯定的인 側面을 엿볼수 있으나 이러한 結果는 무엇보다 低賃金에 의한 價格競爭力의 優位堅持下에서 적어도 電子, 船舶, 一般機械類등 比較的 勞動集約的인 製品의 輸出增大要因으로 指摘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重化學製品의 輸出成果를 더 이상 擴大·高度化로 끌어올리지 못했던 不振要因은 技術人力 및 自體技術蓄積의 不足, 先進技術의 消化未洽에서 오는 品質水準의 低位, 그리고 基礎原資材의 適時 適量確保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技術不足과 先進技術活用不振에 의한 脆弱性은 短時日에 改善이나 補完되는 것이 아니라 企業을 營爲하는 經營者의 開發投資意慾과 特許技術에 대한 關心度에 따라 決定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중화학공업의 建設을 위해서는 이들 工業의 大部分이 資本集約的인 裝置産業으로서 施設規模가 比較的 큰만큼 建設費用이 龐大하고 所要資本의 調達이 先決되어야 한다는 어려운 問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重化學工業化推進을 위한 政府의 積極的인 支援施策에 힘입어 龜尾電子工業團地, 昌原械工業團地蔚山 및 麗川化學工業團地 등의 造成으로 國內企, 業들은 內資調達과 外資誘致에 拍車を 加하고 있으므로 設備投資에는 크게 隘路를 느끼고 있지 않은것 같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設備投資에 발맞추어 有能한 技術人力의 確保와 技術革新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點이다.

最近 海外需要가 增加하고 있는 機械, 金屬, 電機, 電子등 중화학제품을 擴大供給하기 위하여는 기업은 當該業種의 研究開發投資에 따른 綜合研究所의 設置 및 研究員의 確保, 先進技術情報資料의 購入備置, 源泉特許의 導入과 優秀 國內特許開發등에 力點을 두면서 政府施策에 酬應해야 할 것이다.

要는 기업의 적극적이며 効果的인 개발투자가 제품의 品質向上과 高級化를 가져올수 있는 밑거름이 될때 輸出은 伸張될수 있는 것이며 國際競爭力의 基盤을 더 厚壯 다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部門別 輸出実績 및 構造推移

	1966	1971	1973	1975	1976	
總 輸 出(A)	250.0	1,067.6	3,225.1	5,081.0	7,715.3	
重化學製品(B)	26.0	151.4	767.0	1,271.2	2,264.2	
輕工業製品(C)	167.0	769.3	2,043.5	2,916.1	4,228.1	
一 次 產 品	57.0	146.9	414.6	883.7	1,223.1	
比重 (%)	B/A	10.4	14.2	23.8	25.0	29.3
	C/A	66.8	72.1	63.4	57.4	54.8

資料 :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② 特許開發의 課題

기업의 特許開發 및 特許管理는 經營戰略의 核이 될뿐만 아니라 輸出伸張을 위한 手段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技術高度化産業社會에서 必要不可

決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美國의 General Electric社는 15,000餘個의 특허개발로서 電機電子制品의 輸出擴大는 물론 특허허리의 能率化로 他社로부터 年間 2,400萬弗의 技術料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複寫機메이커로서 全世界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XEROX社는 특허개발로서 制品 1台當 200餘件의 特許綱을 形成하여 他社가 이를 侵害할 수 없도록 徹底한 특허관리를 하므로써 世界市場을 獨占하여 수출하고 있음은 특허개발 및 특허관리의 重要性을 立證하고도 남음이 있다.

美國의 특허를 改良하거나 많은 技術료를 支拂하면서 이를 充分히 消化하는데 成功한 日本企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트랜지스터 라디오, 테이프레코더 등을 처음으로 實用化하여 世界各國에 수출망을 펴놓고 있는 日本의 SONY社도 특허개발을 위해 研究開發에 從事하는 研究員이 2,000餘名이나 되는데다 특허관리를 專門으로 하는 辨理士등의 要員도 5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개발을 위한 遠大한 목적 아래 企業內 綜合研究所의 運營으로 有名한 松下電器産業이나 芝浦電氣에서는 新制品開發競爭에서 앞서나가는 수단으로 研究員들의 研究開發活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같은 事例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개발이나 그 活用에 보다 關心을 기울여야 할 理由는 先進國企業들이 自社制品의 技術革新으로 特許權을 設定하여 國內市場의 독점은 물론 輸出對象國에까지 특허망을 設置하는 經營戰略과 基本態勢를 배우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우리의 經濟는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急成長하고 있다고는 하나 生産制品의 하나하나에 技術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국제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없을뿐만 아니라 모든 分野에서 成長의 限界를 느끼게 될것은 明若觀火한 일일 수 없다.

더우기 기업의 技術開發意慾이 個人發明人들에 뒤지는 오늘의 現實속에서 經營者들의 自覺과 奮發로서 社內研究開發을 통하여 國內外에 特許出願을 늘려나갈수 있는 與件이나 霧圍氣造成에 힘쓰지 않고서는 언제나 個人出願이나 特

許設定에 뒤지는 결과를免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個人이 發明한 優秀한 發明考案品에 대해서는 慎重히 分析檢討하여 이를 實施促進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特許制度는 더욱 發展할 수가 있다 할 것이다.

③ 輸出과 特許戰略

이제 우리나라의 輸出規模는 125億弗을 達成하고 150億弗에 다시 挑戰해야 할 새해를 맞게 되었다

輸出量이 늘어남과 더불어 輸出市場과 輸出品目도 增加하게 되어 예전에 보잘 것없던 商品單位當輸出額도 적게는 몇萬弗에서 크게는 몇千萬弗씩 확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불행히 外國에서 별로 關心을 갖지 않던 품목도 漸次 綿密히 注視하면서 自國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의 與否를 銳意確認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某 纖維會社가 美國商標와 西獨의 디자인을 使用해서 제품을 만들어 香港과 歐羅巴市場에 수출했다가 그곳에 登錄되어 있는 外國會社로부터 商標權 및 意匠權의 침해라 하여 商品의 上陸을 制止 當하여 不得已輸出을 中斷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한편으로는 國內 有名電子메이커인 某會社에서도 錄音機를 구라파시장에 수출했다가 그 기술의 特許權者인 美國會社로부터 輸出中斷措置와 더불어 損害賠償까지 물게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企業人에게 하나의 警鍾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外國의 經濟使節團의 一員으로 來韓한 바 있는 英國人辨理士를 만난 자리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큰 參考가 될만한 忠告를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특허에 대한 基本觀念이 稀薄하여 外國의 특허권을 模倣하여 수출하는 등 特許侵害에 너무 無關心하다는 것을 일러준 적이 있다.

그때는 輸出額數가 적은데다 單位當 品目數量도 많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押留措置까지 實行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品目當 輸出金額도 커서 訴訟費用은 물론 賠償請求까지 充分히 할수 있는 狀況이므로 政府나 民間團體에서 이에 對

處하는 啓導活動을 적극적으로 展開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傳言 한바 있다.

더우기 80年代를 바라보며 무엇보다 技術面에서의 隘路를 느끼게 될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을 圓滑히 推進하기 위해서도 政府는 民間企業의 특허개발을 促進 할수 있는 制度的인 支援과 더불어 經營者의 意識構造를 改善할 수 있는 啓導活動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 77년부터 特許廳이 發足되면서 特許行政體制를 새로이 갖추고 國內으로는 特許管理部署를 企業內에 設置토록하고 特許協會의 협조를 받아 關係擔當社員들을 研修시키며 特許情報資料의 配布와 優秀發明을 選定하여 表彰하는 등 發明獎勵活動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國際工業所有權趨勢에도 발맞추어 WIPO에 1次的으로 加入하기 위한 外國專門家招請세미나를 開催하면서 對外活動도 活潑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목적과 意圖가 수출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그 地域에 특허권을 등록하거나 事前에 情報調查活動을 전개할 수 있도록 對內外的인 여건을 造成해 주는데 있는만큼 기업인들도 특허개발이나 國內外出願, 登錄 나아가서는 선진기술의 導入活用등 一聯의 經營戰略을 앞세워 나아가는 것이 時急한 課題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橋梁的 役割을 하고 있는 特許關聯團體인 韓國特許協會에서도 創立과 더불어 그동안 會員企業을 비롯한 國內企業에 대한 工業所有權 認識을 提高시키기 위한 事業活動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汎國民的으로 發明思想을 普及시키기 위한 基本視角에서 初·中學生들부터 이를 注入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이룩해야 할 중화학공업은 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것이며 高度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頭腦產業에까지 成長發展해 나가려면 특허로서 獨占化되어 있는 外國先進技術을 도입활용하면서 자기기술로 소화시켜야 할 것인바 여기서는 무엇보다 우리 기업인 스스로가 특허가 얼마나 중요하며 기업경영에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을수 있는 姿勢가 先決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確信한다. ♣